

KIA-두산(21~22일)·현대(23~24일)·한화(27~28일)·롯데(30~10월2일)

호랑이 4강 길 '산넘어 산'



"왜 천적들만 남은거야" 이런것을 두고 '참철산중(參鐵山中)'이라 하는가 보다. 지난주 잠실 두산전서 3연승을 거둘때만 해도 KIA의 4강행은 때론 당연시됐었다. 하지만 KIA의 남은 경기 일정을 살펴보니 4강행이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닌 듯싶다.

올 현대·한화·롯데에 열세 두산과 홈 2연전 배수의 진

20일 현재 KIA는 10경기를 남겨놓고 있다. 올 시즌 유난히 약했던 현대, 한화, 롯데 등 '천적'과의 맞대결이 8차례나 된다. KIA는 우선 오는 23~24일 광주서 격돌하는 '형제구단' 현대가 부담스럽다. KIA의 현대전 성적은 4승 12패, 4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는 8연패의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현대전서도 4-6으로 패해 4연승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두산과 4강 경쟁을 벌이고 있는 KIA로서는 중요한 길목마다 발목을 잡는 '형제' 현대가 아슬할 뿐이다.

현대를 넘어서면 '강적' 한화와의 2연전(27~28일)이 기다리고 있다. KIA는 올 시즌 한화와 16번 맞붙어 10번이나 깨졌다. 6승 10패.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마지막 남은 롯데와의 4연전은 KIA를 더욱 부담하게 한다. KIA는 시즌 마지막 경기로 롯데와 더불어 포항, 4연전(9월 30일~10월 2일)을 치러야 하는데 상대 성적이 신통치 않다. KIA는 하위팀 중 유일하게 롯데에 6승 8패로 밀리고 있다. 특히 롯데 손민환은 올 시즌 KIA전 3

경기에 선발로 나와 3승, 평균자책점 0.35(25.2이닝 1실점)의 완벽투를 뽑았다. 반면 10경기를 남겨 둔 두산은 비교적 여유로운 팀을 만난다. 두산은 일단 주중 광주 2연전 후 LG와 주말(23~24일)2연전, 26일 현대와 1게임을 치른다. 두산은 양팀 모두에게 각각 9승 7패, 10승 7패로 상대 전적서 앞서 있어 그만큼 승수를 쌓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두산은 19일 롯데 10승 3패로 '보약'이나 다름없는 롯데와의 2연전(28~29일)이 반갑다. 두산은 또 마지막 3경기를 삼성, SK, 한화와 1게임씩 격돌하는데 이마저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1위 삼성과 3위 한화의 순위가 조기에 확정될 경우 이들 모두 플레이오프에 대비, 주 전력을 제외한 '포기 게임'을 치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KIA는 고민끝에 '꿈'을 조기에 잠재우는 방법을 택했다. KIA는 21~22일 광주 두산 2연전에 '원투런치' 김진우와 그레이싱어를 투입하고, 한기주-윤석민 등 최강 불펜진을 총 동원하는 등 초강수 전략으로 맞선다는 복안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일 충남 금산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금산인삼장사 씨름대회 제139대 백두장사 결승전 마지막판에서 황규연(현대삼호오른쪽)이 안다리 결기 공격으로 백성욱(여수시청)을 쓰러뜨리고 백두장사에 오른 뒤 모래판 위에서 숨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멤버만 보면 필승인데'

라이더컵 앞두고 美 언론 걱정



미국과 유럽의 프로골프대항전인 라이더컵을 앞두고 미국 언론은 걱정이 태산이다.

2년마다 열리는 라이더컵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 프로골프 선수들이 3회 연속 패배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 유럽에 진 미국은 홈에서 열린 2004년 대회에서 참패를 당해 '왜 최강의 선수로 구성된 미국이 그저 그런 선수들로 팀을 짠 유럽에 힘을 못쓰냐'는 질타를 받았다. 전체 전적에서는 25승10패로 절대 우위에 있지만 미국은 1985년 이후 10차례 대회에서 3승7패로 크게 밀리고 있다. 22일(한국시간) 아일랜드 K클럽 골프장에서 열리는 라이더컵에 출전하는 미국 대표팀 역시 타이거 우즈, 필 미켈슨, 짐 퓨릭, 제드 캠펠, 데이비드 톰스, 크리스 디마르코, 잭 존슨, 스티븐트 싱크 등 호화군단이다. 이에 맞서는 유럽팀은 폴린 몽고메리(스코틀랜드),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파

드릭 해링턴(아일랜드), 대런 클라크(북아일랜드) 등 스타 플레이어가 즐비하지만 선수들의 이름값에는 미국에 미치지 못한다. 유럽의 강점은 선수들 모두 팀 플레이가 몸에 배어 있다는 사실이다. 라이더컵은 두 선수가 공 1개를 번갈아 치는 포션 방식과 두 선수가 각각 플레이를 펼쳐 적은 타수를 친 선수 성적을 팀 스코어로 삼는 포블 방식, 그리고 1대1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치러진다. 포션과 포블 경기에서는 개인의 기량보다는 팀워크가 승부를 좌우한다. 그런데 미국 선수들은 대회 첫날과 둘째날 포션과 포블 경기에서 손발이 맞지 않아 유럽팀에 대패하기 일수였다. 올해라고 이런 사정이 그다지 나아질 조짐은 없다. 유럽투어를 주무대로 삼고 있는 선수들은 "유럽프로골프투어가 미국프로골프투어보다 상급은 적지만 선수들끼리 가족처럼 어울리며 강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듯 평소엔 제각각인 미국 선수들이 갑자기 팀워크가 다져질 수는 없는 일이다. 반면 유럽팀은 최근 아내를 암으로 잃은 클라크를 팀원으로 발탁하는 등 강한 동지애를 나누며 3회 연속우승을 자신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화 류현진 18승 신인 최다승 타이

'괴물 투기' 투수 류현진(19·한화)이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의 신인 기록을 새롭게 쓰고 있다. 류현진은 20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과 연속경기 1차전에 선발 등판, 7.1이닝 동안 4안타 3볼넷 3탈삼진 무실점으로 막고 2-0 승리를 이끌어 승리투수가 됐다.

이로써 류현진은 시즌 18승을 올려 지난 1986년 김건우(MBC)가 세운 국내 프로야구 한 시즌 신인 최다승기록과 타이틀을 이뤘다. 류현진은 또 엄종석(롯데·1992년)이 보유하던 한 시즌 고졸신인 최다승기록(17승)을 갈아 치웠다. 또 탈삼진 3개를 보며 시즌 196개의 탈삼진을 기록, 지난 1996년 주형광(롯데) 이후 10년 만의 토종 투수 한 시즌 200탈삼진 달성에 4개 차로 다가섰다. 특히 다승과 탈삼진, 방어율(2.19)부문 1위를 질주, 선동열 삼성 감독이 해대 소속이던 지난 1991년을 끝으로 명맥이 끊긴 '투수 트리플 크라운' 달성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다. /박진표기자 lucky@

홍란 8연더 단독선두 한국여자프로골프 1R

한국여자프로골프 무대에 '베스트드레서 신드롬'이 돌아치고 있다. 20일 경기도 여주시 자유골프장(파72·6천441야드)에서 열린 신세계제 28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선수권대회 1라운드에서 8연더파 6타로 단독 선두에 오른 홍란(20·이수건설·사진)은 지난 17일 끝난 SK엔크린솔루션비테이셔널에서 '베스트드레서'로 뽑힌 신예 선수. 상금랭킹 2위를 달리고 있는 박희영(19·이수건설)이 6연더파 66타를 때려 무명 선수 원용준(21)과 함께 공동 2위에 나서면서 소속사가 같은 홍란을 바짝 추격했다. 신세계 계약 선수 김영(25·신세계), 그리



고 송보배(19·슈퍼리어), 안선주(19·하이마트), 김혜정(20·LIG-김영주골프), 이정은(29) 등 우승 후보로 꼽혔던 선수들이 5연더파 67타를 쳐 4위 그룹에 포진, 치열한 우승 경쟁을 예고했다. 상금왕과 신인왕 동시 석권을 노리는 상금랭킹 1위 신지예(18·하이마트)는 이븐파 72타에 그쳐 공동 57위로 밀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황규연 '백두봉' 올랐다

■ 금산인삼장사씨름

'모래판의 귀공자' 황규연(31.현대삼호중공업)이 2년5개월만에 백두장사 타이틀을 되찾아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황규연은 20일 오후 충남 금산스포츠센터에서 열린 KB국민은행 금산인삼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 결승에서 백성욱(여수시청)을

2-1로 누르고 정상에 올라 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황규연은 신창건설 소속으로 2004년 4월 천안장사대회에서 1위에 오른 이후 2년5개월만이자 통산 다섯 번째 백두장사 꽃가마를 탔다. 황규연은 16강에서 지난 8월 제천장사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강력한 우승후보 박영배(현대삼호중공업)와 맞붙어 스포츠센터를 가득 메운 팬들의 흥미를 끌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하지만 황규연은 주특기가 들배지기인 박영배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경기 시작 2초만에 잡채기로 모래판에 눌렀다. 김정목(용인백옥쌀)을 밀어치기로 꺾고 4강에 진출한 황규연은 준결승에서 백두장사 강호 염원준(마산시체육회)과 만나 한 때 위기를 맞기도 했다. ◇백두장사 결승전 순위 ▲1품 = 백성욱(여수시청) ▲2품 = 염원준(마산시체육회) ▲3품 = 정원용(기장군청) ▲4품 = 강성찬(구미시체육회) ▲5품 = 최진환(의성군청) ▲6품 = 김정목(용인백옥쌀) ▲7품 = 정원식(수원시청)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담양 창평CC 26일 그랜드 오픈

주중 이용료 5만8천원

○-담양군 창평의 월봉산 자락에 조성된 정규 퍼블릭 9홀 창평CC(파 36·2,974m)가 오는 26일 그랜드 오픈한다. 이용요금은 주중 5만8천원, 주말 8만8천원이며 카트비는 팀당 4만원이다. 하우스 캐디는 8만원, 준하우스 캐디는 7만원, 하우스 캐디는 4만원, 준하우스 캐디는 3만원이다. 문의 061-382-8111. 또한 창평CC는 오는 23일부터 오후 4

시 이후 '나이트 9홀'을 추가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9월23일~29일 티업시간 오후 4시~ 5시, 9월30일~10월8일 티업시간 오후4시~ 6시까지. 단 9월 25일은 휴장하고, 추석 전날인 10월 5일과 추석 당일 6일은 '나이트 9홀'을 운영하지 않는다. 9홀 이용요금은 주중 3만원, 주말 4만5천원이며 카트비는 팀당 2만원이고, 캐디는 하우스캐디 4만원, 준하우스캐디는 3만원이다. 문의 061-382-8111.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파인힐스CC 월요우대제

○-파인힐스CC가 월요우대제를 실시한다. 파인힐스 CC는 본격적인 골프시즌을 맞아 고객들의 월요내장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월요우대제를 실시한다. 월요우대제는 월요일 주중 12만원이던 그린피를 2만원 할인된 10만원에 라운드를 즐길 수 있고, 파인힐스 로고가 새겨진 로고볼 1개를 서비스 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